

[P1-9]

## 식생활 관련 설문조사 척도에 관한 연구 I

김기남\*, 박동연, 이경신

충북대학교 식품영양학과, 동국대학교(경주) 가정교육과,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 A Study on Scales of Questionnaires Related Dietary Life I

Ki-Nam Kim\*, Dong-Yean Park, Kyoung Sin Lee

Dept. of Food & Nutrition, Chungbuk National Univ. Cheongju, Korea,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Dongguk Univ. Gyeongju, Korea,

National Health Personnel Licensing Examination Board, Seoul, Korea

본 논문은 설문지를 이용한 식생활 관련 논문에서 식행동, 식태도, 식습관, 기호도 등을 측정하는 척도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은 설문지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1995년부터 2003년까지 대한가정학회지, 한국영양학회지,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에 수록된 논문 중 논문제목, 소제목, 논문내용에 식행동, 식태도, 식습관, 기호도와 이들 용어와 유사한 용어를 포함하는 논문 209편을 대상으로 내용분석을 하였다. 이들 논문을 대상으로 용어 사용의 빈도, 용어의 정의 여부, 구체적 문항 제시 여부, 사용한 척도의 종류, 설문 문항의 문제점 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논문 제목에 가장 빈번히 나타난 용어는 식습관(39.7%)이었고, 그 다음은 식행동(28.2%), 식태도(13.9), 기호도(6.7%) 순이었다. 조사지역별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용어는 서울과 대구에서는 식습관(35.6%, 41.2%), 경상도는 식습관과 식행동(각각 28.6%), 부산은 식태도와 식습관(각각 25.0%)이었다. 연도별로 볼 때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난 용어는 2002년을 제외한 모든 연도에 식습관(28.3-47.1%)이었다. 조사대상별로 볼 때 높은 빈도를 보인 용어는 유아와 초등학교 학생의 경우는 식습관(47.1%)과 기호도(35.3), 중·고등학교 학생은 식행동(40.4%)과 식태도(23.4%), 대학생은 식습관(34.7%)과 식행동(31.6%), 성인의 경우는 식습관(34.5%)과 식태도(22.9%), 노인은 식습관(30.8%)과 식행동(26.9%)이었다. 측정하려고 하는 변수의 조작적 정의를 내린 경우는 거의(96%) 없었다. 논문에 설문지 문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경우는 64%이었다. 사용한 척도의 47%는 명목척도와 서열척도를 함께 사용하였고, 30%는 서열척도만을, 13%는 명목척도만을 사용하였다. 설문 문항의 문제점 중 중요한 몇 가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논문의 제목, 연구목적, 연구방법에서 측정하겠다고 한 변수의 용어가 실제 측정된 용어와 일치하지 않았다. 둘째, 표를 만들기 위해 한글 용어를 영문으로 번역한 경우 의미가 다른 용어를 사용한 경우가 있었다. 셋째, 문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아 측정할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었다. 넷째: 식태도를 측정하는 항목에 식행동에 속하는 문항이 포함되어 있는 등 타당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경우가 있었다. 다섯째, 응답의 보기를 제시한 경우 범주가 중복되거나, 한쪽으로 치우친 보기를 제시한 경우가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보면 식생활 관련 연구 중 식습관에 관한 연구가 지역, 연도, 조사대상에 관계없이 가장 많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고 유아의 경우 식습관 외에 기호도 연구가, 중·고등학교 학생의 경우는 식행동과 식태도에 관한 연구가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설문 문항의 작성 시 용어가 정의되지 않은 채 사용되었고 신뢰도와 타당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이 확인되었다.